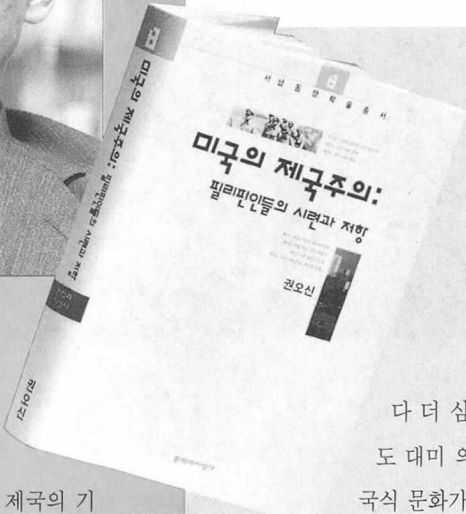




권오신 교수

문학과지성사/A5신/470면/16,000원



문명의 야만과 그 상흔

《미국의 제국주의》 펴낸 권오신 교수

20세기 현대사를 관통하는 핵심어 가운데 하나는 제국주의다.

권오신 교수가 펴낸 《미국의 제국주의》는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사를 통해 제국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한다. 권교수는 미국의 필리핀 식민정책의 본질을 '인도주의로 위장된 경제적 국익추구'라고 규정한다.

20세기 현대사의 비극적

유산 가운데 하나는 식민과 제국의 기억이다. '문명'의 명예를 독점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산업화가 뒤진 제3세계 국가에서 '야만'의 횡포를 자행하는 데 선진적이었다. 인간에 대한 억압을 제도화한 제국주의는 지배자에게는 오만의 정체를 상기시키고 예속자에게는 굴종의 치욕을 환기시키는 역사의 거울이다.

우리에게도 제국주의는 지울 수 없는 '화인'(火印)으로 남아 있다. 일본 제국주의를 경험한 우리에게 그것은 잊어버리고 싶은 '야만의 시간'이었다. 물리적 식민주의를 극복한 오늘날에도 예속의 기억은 '망언'이라는 악령으로 떠돌고 있다. 제국과 식민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미국의 필리핀 식민정책의 본질

400여년 동안 외세의 억압을 경험한 필리핀의 역사는 제국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할 수 있는 전형적 사례다. '동방의 진주'라 일컫는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지배 아래서 신음해왔다. 그 가운데 미국의 제국주의는 가장 깊은 상흔을 남겼다. 권오신 교수(43, 강원대 사학과)가 펴낸 《미국의 제국주의》(문학과지성사)는 그 상흔의 역사를 추적한다.

“필리핀은 1898년부터 1945년까지 50여년 동안 미국의 식민통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식민의 결과는 300여년 동안 지속된 스페인의 통치보

다 더 심대합니다. 독립 후에도 대미 의존도는 지속되고 미국식 문화가 일상의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제국주의가 노획하면서 간교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책은 미국 식민정책의 골격과 성격의 변화에 따라 6개의 시기로 나눠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사'를 정리한다. 미국의 필리핀 병합은 '명백한 운명론'이나 '거대한 정책'과 같은 팽창주의자들의 논리에 의해 뒷받침됐다. 백인의 우월의식과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일본의 조선침략과는 달리, 미국은 초기에 필리핀 병합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없었습니다.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거점으로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리핀의 식민지배가 노골화됩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해외 시장으로서 가치가 높았던 것입니다.”

권교수는 미국의 필리핀 식민정책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색채로 위장된 이기적인 경제적 국익추구'라고 못박는다. 필리핀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자치권을 허용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매력적인 시장으로서 기능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명분상 자치를 강조합니다. 필리핀인들의 독립요구에 대해 자치 역량이 갖춰지면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필리핀을 독립시켜줬

지만, 그것은 자치의 역량이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의 상품과 노동력이 유입돼 미국 내 불만세력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입니다.”

미국의 실제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미국식 제국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정책에서 드러난다. 스페인이 종교정책을 통해 식민지배를 확립했다면, 미국은 교육정책으로 필리핀인들의 민족의식을 희석시켰다. 공립학교 제도를 도입해 영어를 교육 및 일반 공용어로 채택하고, 국비 장학생 제도를 통해 미국지향적인 정책 입안자를 양성했다. 미국의 대중문화가 상륙해 미국식 생활방식이 곳곳에 스며들었다.

“식민지배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됐습니다. 자국의 문화적 전통이 무시되고 외국 것을 무조건 선호하는 식민지 근성이 자리잡았습니다. 마약, 청소년범죄, 문란한 성 등 미국의 '하수구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한마디로 '탈필리핀화' 현상이 만연하게 된 거죠.”

일본의 식민유산이 잔존하고 미국의 문화침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필리핀의 피식민지 경험은 우리의 '반면교사'다. 권교수는 식민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인식이 선결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3국의 입장에서 제국주의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한 바탕 위에서만 진정한 호혜주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권교수의 결론이다. — 춘천·박천홍 기자